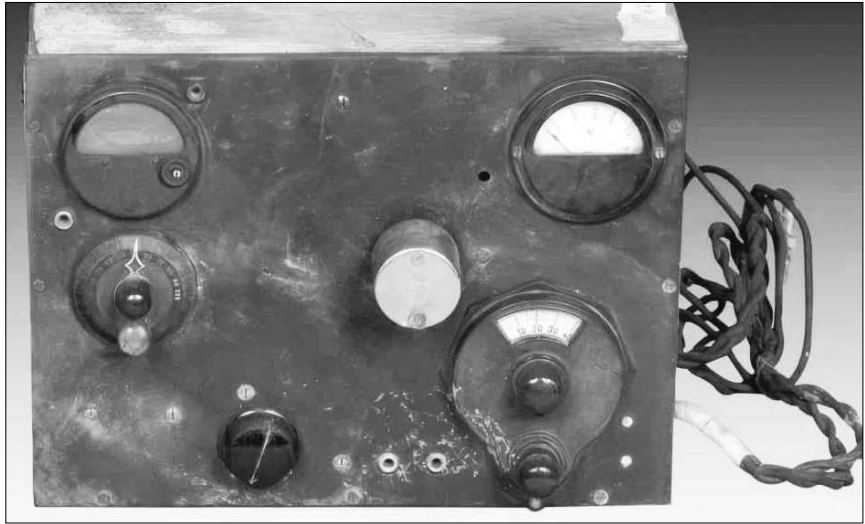


[혁명문물 이야기]

동북항일련군 교도려 박영산이 사용한 무전기와 암호책



무전기

중대한 역사를 품고 있는 혁명문물인 무전기와 암호책이 그 뒤에 숨겨진 조선족 영웅 박영산의 이야기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985년 8월 29일, 흑룡강성 동녕현 수양림업국 류교구림장의 퇴직종업원 량용 등이 한총하림장 작업구역의 한 바위 틈새에서 부품을 녹슨 상태지만 형태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유지된 무전기와 표지가 손상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한 암호책을 발견했다. 무전기는 다섯겹 합판으로 만든 작은 나무상자에 싸여져있었으며 방수전으로 포장되어있었다. 무전기 등 장치 외에도 ‘박영산’이라는 이름이 적힌 위만주국시기 학생사전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사전이 바로 관건적인 암호책이었다.

이 무전기와 암호책은 항일련군 박영산소부대가 사용하던 것으로 당시 무전기의 배터리가 다 나가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박영산은 무전기와 암호책을 잘 포장하여 산속의 바위틈에 숨겨둔 것이었다.

1939년말부터 1940년초 기간, 동북의 항일전쟁은 곤경에 빠졌었다. 동북항일련군의 주력부대는 쏘련 경내로 이전하여 동북항일련군 교도려(쏘련공농홍군 독립보병 제88려)가 설립되었고 일본군에 대한 정찰작업을 주요 임무로 맡게 되었다. 동북항일련군 소부대는 정찰 활동과 정보 수집 활동으로 쏘련홍군의 동북출병에 극히 중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박영산소부대는 항일련군이 쏘련에서 집중 훈련하는 기간 파견돼 귀국한 소부대 가운데 하나였다. 1941년 봄부터 1945년 8월까지 30여명의 소부대가 파견되었는데 소부대 인수는 적어서 3~5명, 많을 때는 20~30명이 되었다.

박영산은 동북항일련군 제5군 부



암호책

관으로서 풍부한 대적 투쟁 경험과 믿음직한 정치적 소양 및 전투지역에 대한 익숙함을 바탕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인물로 꼽혔다. 1940년 부대와 함께 쏘련에 간 후 그는 여러 차례 위험한 임무를 맡은 채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귀국하여 동북의 냉안, 목릉, 동녕 일대 적구에 깊이 침투해 일본군의 병력 배치, 특무망 분

포 및 비행장 위치 등 중요한 군사정보를 목숨 걸고 수집했으며 이 무전기를 통해 쏘련 국동군구 정보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했다.

1944년 6월, 박영산은 두명의 전사와 함께 념안현 남마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불행히도 특무에 의해 발견되었다. 격렬한 전투중 두명의 전사가 총탄에 맞아 희생되었고 박영산은 적에게 포로되었다가 할빈에서 학살당했다.

동북이 해방된 후 사람들은 박영산렬사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고 마장촌을 영산촌으로 개명해 영웅의 공적을 기리었다. 현재 이 두 문물은 동북렬사기념관에 보관되어있으며 1996년에 국가 일급 문물로 지정되었다.

이 문물들은 동북항일련군이 쏘련 경내로 이전한 후 일본침략자와 특수한 형식으로 투쟁한 력사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박영산 등 항일전사들이 피와 생명으로 쌓아 만든 ‘정신적 기념비’이기도 하다.

/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동녕요새와 태평령에서 울려 퍼진 우렁찬 항일가요

연길시칠색합창단 쏘련홍군렬사들을 기리면서 연변의 항일전적지 답사

2014년 9월 18일에 창단하여 십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력사를 되새기고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청춘과 생명을 바친 항일투사들의 영령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항일가요를 수집,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에 정진하고 있는 연길시칠색합창단(전신은 중국조선족항일가요합창단)은 항전승리 80주년 계렬 활동의 일환으로 동녕요새와 태평령 등지를 찾아 항일가요를 열창하였다.

“이번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최후의 전장이라 불리는 동녕요새와 태평령을 찾아 쏘련홍군렬사들을 기리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도중에 연변의 항일전적지들을 찾아 답사하는 형식으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6월 12일, 연길에서 출발한 대형 버스에서 연길시칠색합창단 리상덕 단장이 이번 활동의 주제와 코스를 소개하였다.

이날 합창단 일동은 연길—량수—



복흥을 경유하여 동녕에 도착하였는데 도중에 동장영렬사릉원을 답사하였다. 13일 오전, 합창단은 ‘동방의 마지막보성’이라 불리는 동녕요새를 찾아 답사하고 동녕요새 입구 평화광장과 ‘동녕요새유적진렬관’ 앞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창작된 쏘련 가요〈오솔길〉을 합창하는 것으로 쏘련홍군렬사들의 업적을 기리었다. 기록에 의하면 동녕요새를 지키던 일본침략자들은 투항을 거절하고 8월 30일까지 저항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참가자들은 수분하통상구와 ‘중동철로기념관’, 동녕시 삼차구조선족소학교 등지를 참관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14일 오전, 합창단 일행은 동녕—로혹산—라자구—대흥구—연길 코스를 리용하였는데 이는 왕청현의 홍색관광 제2코스이기도 하다. 일행은 도중에 태평령에 위치한 ‘쏘련홍군해방탑’을 찾아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정리한 후 쏘련 가요〈오솔길〉을 합창하는 것으로 렬사들의 업적을 기리었다. 태평령전투는 쏘련홍군이 중국 경내에서 펼친 가장 격렬한 전투중의 하나로 참여병의 렬사들이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태평구촌 지식청년집체호터, 계관향 조롱박골에 위치한 량성통렬사순국지, 대흥구진 하서촌에 위치한 량성통렬사옛집터 등 렬사유적을 답사하는 것으로 이번 활동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 김태국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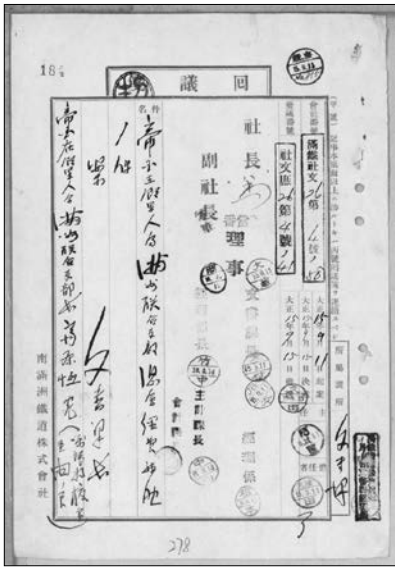
료녕성서류관 1,200 여점의 만철서류 공개 일본의 중국침략 죄행 폭로

료녕성서류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중국침략 서류 개방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6월 9일에 9.18사변, 7.7사변과 관련된 1,200여건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 서류 목록을 정식으로 대외에 공표했다.

만철은 일본제국주의가 1906년에 설립하였는데 본부는 도쿄에 위치해있었으며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포함에 따라 소멸되었다. 만철은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철은 동북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광산자원을 약탈하면서 제반 정보를 수집한 일본의 중국침략 급선봉으로서 일본의 중국침략전쟁에서 부인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

료녕성서류관은 대량의 만철서류를 연구하면서 9.18사변, 7.7사변, 남경대학살 등 일본의 중국침략에서의 중대한 사건들이 거의 모두 만철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표된 서류 목록에는 주로 만철이 중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친일세력을 육성하며 중국침략전쟁을 지원하고 군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침략을 선전, 미화한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만철의 장기적인 잠식 확장은 일본군이 중국 동북을 침범하는 데 기초를 닦아주었다. 1931년 9월 18일 밤, 일본군은 심양 류조호 부근의 일본인들이 건설한 남만철도선을 폭파하고 중국 군대의 소행이라고 무함한 후 이를 구실로 중국 동북군 주둔지 북대영을 진공하고 심양성을 포격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9.18사변을 발동하였다. 이 철도를 경영관리하는 만철은 그가 장악한 거대한 운수력, 풍부한 광산공업리윤, 농업자원 및 과학기술, 정보 수



집 역량으로 전력을 다해 협조하고 협력하며 오래동안 계획해온 침략에 참여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9.18사변 전사자에 관한 만철의 위로금 증명표’는 만철이 9.18사변중 일본군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전사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등 상황을 기록하여 만철이 일본군의 침략에 지지를 제공한 진상을 밝혀냈다.

만철서류는 일본의 근 40년 동안의 중국침략전쟁에서 만철회사가 저지른 많고 많은 죄행들을 기록하였고 중국인민들이 긴밀히 단결하여 일제의 침략에 공동으로 항거하였음을 반영하는 보관서류 사료도 대량 남겨놓았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료녕성서류관에서 만철서류를 정리, 공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력사서류들로 일본이 오래동안 계획해온 중국침략전쟁을 발동한 내막을 한층 더 밝혀내고 중화민족의 영웅한 항전 장거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 신화사

[혁명유적지 소개]

훈춘시대황구당사교육기지



훈춘시대황구당사교육기지는 훈춘시 영안진 대황구촌에 세워졌다. 훈춘시대황구당사교육기지에는 대황구항일유적근거지, 대황구당사전람관, 중공훈춘현위 탄생지, 13명 렬사 순난지, 대황구 쏘베트정부 유적지, 위만군 기의 유적지, 투도령 별동대 유적지, 북구촌 쏘베트정부 유적지, 빈랑구 병

기공장 유적지, 양목교자 병원 및 피복공장 등 10개의 혁명유적지가 망라되었다.

훈춘시대황구당사교육기지는 2004년과 2012년에 선후로 연변주당위, 길림성당위로부터 ‘연변중공당사교육기지’, ‘길림성중공당사교육기지’로 명명되었다.

/ 종합

